

내륙지향 발전 한계...천혜의 관광자원 남해안으로 눈 돌려야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10>정부 주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지방 소멸·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롯한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토 남부권 관광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원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남부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흔히 '굴뚝 없는 공장'으로 비유되는 관광 산업은 국제수지 개선뿐 아니라 지역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남부권 관광산업 육성에 눈을 돌리

지방 소멸·수도권 집중 방지

국가균형발전 '일거삼득' 효과

문체부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발빠른 대응 내년 예산 투입돼야

고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은 도로·교통·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고 일자리가 생겨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는 물론 균형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사, 문화자원과 남해안 섬·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함께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정부의 통 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남부권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난 2000년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추진 중인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와 전남, 부산, 울산, 경남지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관련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는 남부권 관광개발 방향, 관광기반 조성 방안,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집행 계획,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정부는 용역 결과와 남부권 5개 광역단체가 제시한 사업안 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2021-2030)에 걸쳐 추진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틀을 마련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와 전남, 부·울·경 등 남부권은 주요 관광지가 다수 산재해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 산업 육성 정책에서 조금 소외돼 도로·교통·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부·울·경 5개 시도가 함께 하는 영호남 화합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대구·경북의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 계획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3대 문화권 관광기반조성에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사업의 규모 못지않게 사업 속도에도 빠른 대응을 요구한다.

올 8월 문체부의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2022년부터 예산 투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지역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도 남부권 관광산업 육성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부작용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관광자원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문체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광주권은 무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 남도만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등 관광자원의 매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그동안 줄곧 정부 예산 지원은 물론 대단위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소외됐다"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무등산국립공원, 남도문화관광 거점 공간 구축에, 전남은 천혜의 섬, 해양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레저가 융복합된 관광거점을 구축하는 데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행부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수도권 일극 체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내륙 지향적 발전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트렌드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한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인식 아래 섬과 해양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식과 추모 음악회가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DJ 서거 12주기...輿 대권주자들 현충원 참배

"김대중 정신 계승" 한 목소리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과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자는 그때의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 역사의 지도자 세 종류가 있는데 김대중은 역사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시대 김대중 대통령과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산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며 "그분만큼 위대하지 않지만, 그분의 꿈과 사상을 잇볼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제가 (코로나19) 손실 보상법 입법을 제안했는데, 다 김대중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신과 DJ의 연관성을 재차 부각했다.

정 전 총리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법을 만들었다"며 "지금 21년째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이고,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진다"라고도 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다음 5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중도 개혁 노선, 실사구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이라며 "유능한 진보의 길로 가며 DJ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애초 묘역 참배를 일정으로 잡아두었던 이재명 경기는 김두관 의원 아들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일정을 취소하고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대선 SNS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사랑하셨고 닦고자 하셨던 인동초의 의미를 생각한다"며 "수년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제 정치만 달라지면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29.8%·윤석열 19.5%·이낙연 10.6%

코리아리서치 대선 선호도 조사

양자대결 이재명·이낙연, 尹에 우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9.8%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5%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0.3%포인트였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10.6%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5.3%), 최재형 전 감사원장(3.9%), 유

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4%), 심상정 정의당 의원(1.2%), 정세균 전 총리(1%) 순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44.7%의 지지율로, 윤석열 전 총장(35.3%)을 9.4%포인트 앞섰다. 이낙연 전 대표도 40.7%로 윤 전 총장(38.3%)을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화합과 통합의 정신 잇겠다" 논평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김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평화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김 전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전에 강조했던 화합과 통합, 소통을 바탕으로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할 때"라며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이 그리운 오늘"이라

고 덧붙였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 있는 DJ 묘역을 참배한 직후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백방으로 뛰어서 위기를 극복했다. 국민 통합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선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과 묘역을 찾은 윤 전 총장은 "김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배워서 국가가 여러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은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당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